

社會階層과 衣服行態

—서울 시내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金 貞 鎬*

Social Stratification and Clothing behavior

—A study of housewives in Seoul—

Jeong-Ho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or not the clothing behavior of housewives in Seoul vary depending on their socioeconomic status. The null hypotheses tested in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re are no differences in housewives' attitudes toward the importance of clothing according to their socioeconomic status.
- 2) There are no differences in housewives' criteria of clothing choice according to their socioeconomic status.
- 3) There are no differences in housewives' clothing taste according to their socioeconomic status.
- 4) There are no differences in the pattern of housewives' clothing purchase according to their socioeconomic status.

In order to test these null hypotheses, questionnaires on clothing behavior and socioeconomic status were distributed to a sample of 243 purposively selected housewives in Seoul, Korea.

The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d analysis of variance techniques were employ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of data.

The results indicated that:

- 1) The attitudes toward the importance of clothing was related to socioeconomic status.
- 2) The criteria of clothing choice (aesthetics-practicality), clothing taste (individuality-conformity), and the pattern of clothing purchase (a degree of rationality) were not related to socioeconomic status.
- 3) The criteria of clothing selection was related to housewives' level of education.
- 4) Clothing taste was related to housewives' age.

위해 相互接觸을 通하여 다른 사람과 影響을 주고 받으면서 여러 가지의 社會關係를 維持하게 된다.¹⁾

이처럼 人間은 特定한 社會에 生存한다는 條件으로 인해 一般的으로 傳承되는 生活樣式의 종체인 文化를 갖게 된다.²⁾ 文化가 人間의 本能을 代身하고 社會成員

I. 緒 論

人間은 位 낙 社會的 存在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한 集團內에 살고 있는 사람은 社會生活을 營爲하기

* 충북대학교 가정학과 강사

Lecturer, Dept. of Home Economic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의 慾求充足을 위해서 發生하는 것으로 본다면 人間이 衣服을 입게 된 動機도 基本的 慾求의 文化的 反應으로 생각할 수 있다.³⁾

때와 곳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形態이든 衣服을 입으며, 옷은 人間身體의 限界를 설정하는 第二의 피부역 할을 하고 있다.⁴⁾ 또한 衣服은 개개인의 特性을 나타내 줄 뿐 아니라 그 옷을 입는 時代와 그 社會의 文化를反映하고, 한個人이 속하고 있는 團體, 社會經濟의 水準뿐 아니라 그의 値値觀, 態度, 職業, 年齡, 性, 知的水準등을反映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⁵⁾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衣服의 社會的側面을 觀察하되 다음과 같은 具體的인 目的을追求하려고 한다.

1. 社會經濟의 地位에 따른 衣服行態를 觀察함으로써 韓國人의 衣服行態가 갖는 社會的 性格을 理解하고자 한다.

2. 위와 같은 理解를 바탕으로 衣服生活에 대한 意識을 높이고 그合理化에 寄與하고자 한다.

II. 理論的 背景

1. 社會階層別 生活樣式

어느 社會에서나 人間에게는 直接 또는 間接으로 觀察될 수 있는 여러가지 差異點이 있는데 그중에는 性, 年齡, 體型, 精神能力 그리고 人間 有機體에 遺傳된다른 特質이 있고 이러한 遺傳의 差異 이외에도 社會의 構成員으로서 人間이 獲得한 많은 社會的 特質에 의한 差異點이 있다. 이러한 差異에 基礎를 두고 区別되어지는 社會의 役割과 分業을 社會의 分化라고 하며 分化에 따른 不公平한 差別이 繼承되는 社會의 地位의 獨自의 體係로 發達하면서 社會는 階層化되기 시작했다.⁶⁾

이렇게 層化된 社會를 여러 볍주로 나누는 廉價인 收入, 富, 生活機會등의 差別의 配分은 각 階層에 속한個人과 家族의 社會的 위광에 差異를 가져오고 客觀의 으로 비슷한 環境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현저한 文化的 類似性이 나타난다.⁷⁾

階層에 따라支配的인 生活態度를 重點으로 研究한 Mayer와 Buckley에 의하면 美國內에서의 各階層의 値値觀이나 態度를 다음과 같이 要約하고 있다.⁸⁾

上流階級의 生活樣式은 하인을 갖춘 좋은집 뿐 아니라 旅行과 자선행위에 큰 費用이 드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上流中에서도 더 安定되고 자리잡힌 傳統的인 엘리트層 사람들은 사치스런 과시나 눈에 띄는

消費에 耽溺하지 않는다. 변들거리는 자동차와 流行을 따른 衣服은 사교계와 신흥부자層의 地位 象徵으로 본다.

中上階級의 生活樣式은 物質的 幸福을 強調한다. 中下階級에서는 不安定과 心理的不安을 特性으로 한다. 中下階級의 事務職에 從事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生活態度를 通해 勤勞階級과 分離시키려고 애쓴다. 또한 中下階級의 가장 많은 比率의 사람들이 社會的으로 經濟的으로 移動하려고 애쓴다.

下流階級은 大部分 未熟練勞動者, 移住하는 農場勞動者들인데 가난으로 特徵 지워진 生活을 이끌어가고 있다. 낡은 집, 남루한 衣服, 반복되는 실직상태 등으로 인하여 그들은 文化的行動에 거의 關心을 나타내지 않고 체면에 별로 관심이 없으며 現在를 위해 살고 不確實한 未來에 달려드는 것에 마음쓰지 않는다.

2. 社會階層別 衣服行態

1) 衣服에 대한 態度

Flugel은 “衣服이란 人間의 外部의 부속물에 속하지만 社會의 動物인 人間에게는 核心的인 問題다.”라고 指摘했다.⁹⁾

Bush와 London은 한 社會안에서의個人의 役割이 그의 衣服을 支配하여 衣服에서 허용되는 다양성의 한계가 그 社會에서의 그의 役割에 의해 制限됨을 示唆하고 있다.¹⁰⁾ 衣服은 이처럼個人이 차지하고 있는 地位와 役割에 의해 影響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가 衣服을 입는 重要한 理由중의 하나가個人의 身分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衣服을 通해서 우리는個人의 身分을 종종 認識하기도 한다.¹¹⁾

Vener의 研究에 의하면 社會經濟的 身分과 남자의 衣服重要性에 대한 평가 사이에는 매우 낮기는 하나 肯定的 相關關係가 있었음이 나타났다. 상관계수가 매우 낮은 것은 가장 높은 社會의 篩疋의 사람들이 衣服重要性에 대해 가장 높은 評價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¹²⁾ Stone과 Form은 衣服의 社會的 意味와 職業사이의 關係를 研究한 結果 事務職에 從事하는 사람들이 機能職 從事者들보다, 衣服에 더 重要性을 두고 있다는 事實을 알아냈다.¹³⁾

2) 衣服嗜好

衣服嗜好는 個性的인 面과 追從的인 面의 두 가지로 分類해 볼 수 있다.

Barber와 Lobel에 의하면 中·下層은 衣服을 입을 때 대담하고 비범한 것은 좋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입고 있는 수수한 옷을 원한다고 했다.¹⁴⁾

남부 미시간 도시를 대상으로 Stone과 Form이 研究한 바에 의하면 中·上階級이 下層보다 옷 가게의 점원과 더 잘 알고 있는 傾向이 있었다. 그리고 中上階級에서는 1/3정도만이 옷 가게의 점원과 비슷하게 옷을 입고 싶다고 말한데 반해서, 下層에서는 반수이상이 옷가게의 점원과 비슷하게 옷을 입고 싶다고 했다.¹⁵⁾

3) 衣服 選擇

Mary Aslakson은 유행에 관한 概念과 態度에 關聯된 同時代의 社會階級의 差異點을 事務職 從事者들의 부인과 肉體勞動者들의 부인을 비교하였다. 그結果 前者는 後者에 비하여 衣服이 流行에 뒤떨어지면 입지 않는 경향이 크다. 그리고 유행을 따르는 衣服을 입을 때 더 편안하고 자신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은 옷의 외모에 관심을 기울이는 傾向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에 後者는 衣服의 외모보다는 칭결함과 단정함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 자신의 衣服은 平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¹⁶⁾

Carolyn Kundel이 육체노동자와 그의 家族들의 衣服 관습을 研究한 結果 그 부인들의 衣服選擇에서 가장 重要시하는 特質은 잘 맞고, 입어서 편안하고, 값이 적당해야 하며, 그 옷을 좋아해야 한다는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중요시하지 않는 特質로는 최신 유행의 옷, 그들 친구들이 입고 있는 衣服과 비슷한 의복을 들고 있다. 펜실베니아의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Hall의 研究에서도 입어서 편안한 것이 가장 큰 만족을 주는 要因이고 옷모양이나 색깔은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아냈다.¹⁷⁾

4) 衣服 購入

Ryan은 아동부 購入에서 '高所得層일수록 商標에 의해서 구입하고 子女들에게 옷의 商標를 想起시키며 옷의 構造를 자세히 調査한 後 몸에 맞는지 알아본다고 했다. 이러한 경향은 日本에서도 비슷한 結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戰後 開化된 젊은 어머니들도 그들 子女들의 衣服選擇에서 商標을 重視하는 경우는 約 50%로 나타났으며 또 所得階層이 올라갈수록 이 比率도 높아진다고 했다.¹⁸⁾

Converse는 高所得層일수록 衣服購入 場所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했으며 Stone과 Form은 社會經濟的地位가 물건구입 장소를 結定하는 요인이 된다고 했다. 즉 社會經濟的地位가 높을수록 그 지역에서 멀리 나가기로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¹⁹⁾

3. 作業假說

위의 理論的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 가설

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일반가설로는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衣服行態에는 차이가 난다.」라는 命題를 제시 할 수 있고 이를 統計的 처리를 위한 영가설(null hypothesis)로 表現하되, 衣服行態의 네 가지 側面에서 서울에 사는 주부들의 태도별 가설을 設定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衣服의 重要性에 대한 態度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지 않다.

가설 2) 衣服 選擇의 기준(심미성-실용성)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지 않다.

가설 3) 의복기호(개성-추종성)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지 않다.

가설 4) 衣服 구입할 때 보이는 合理性의 정도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지 않다.

III. 研究方法

1. 道具選定

衣服行態검사는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네 가지 側面으로 나누어 각 10문항씩 40문항을 만들었다. 衣服에 관한 문항은 Creekmore, A.M.의 "Measurements of Clothing Variable", Kundel, C. 그리고 강해원²⁰⁾을 참조한 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했다. 그리고 각 문항에는 "아주 그렇다"에서 "아주 그렇지 않다"에 이르는 5단계 評定法検査를 위한 응답지가 주어졌고 이들 40문항은 無作爲의으로 배열하여 偏見을 제거하려 했다. 사회경제적 지위 척도를 위한 문항으로는 남편의 教育程度, 職業, 收入, 그리고 家內物品의 소유여부를 14개 종류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참고로 응답자의 나이와 교육정도를 첨가하였다.

2. 標集對象

標集對象은 서울 시내에 居住하고 있는 가정주부로서 資料蒐集은 조사표를 使用한 면접방법과 응답자 자신이 질문서에 대답하도록 하는 방법의 두 가지를 병용했다. 질문서는 1977年 8月 25日부터 10月 10日까지 연구자와 5명의 보조자가 서울 시내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지역을 임의로 선정하여 425부를 배부하였으나 326부가 회수되었다. 그중 두 가지 이상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것과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243부가 1차 통계처리에 사용되었고 질문 한 가지에도 不完全하게 대답한 것은 제외하고 완전하게 응답한 197부를 골라내어 2차 분석을 위해 통계처리하였다.

3. 統計處理

一次分析에서는 243명에 대해, 衣服에 관한 40문항의 要因分析(factor analysis)과 남편의 職業, 教育, 收入, 家內物品 사이의 相關關係(correlation)를 컴퓨터를 사용하여 檢討하였다. 二次 分析에서는 一次 分析을 土臺로 하여 社會經濟的地位에 따른 衣服行態의 네 가지 側面에 관한 영가설을 檢證하기 위한 統計處理를 하였다.

IV. 結果 및 分析

1. 一次分析

衣服에 관한 40문항은 要因分析하여 要因負荷點數가 0.3이상으로 같은 次元에 集結하는 間項들을 골라 使用하였다. 따라서 衣服行態의 네次元에 대한 점수는 衣服態度, 衣服嗜好, 衣服選擇에는 4문항 그리고 衣服購入에 대해서는 3문항의 점수를 使用하게 되었다.

社會經濟的地位 尺度構成을 위하여 우선 家內物品을 分析하였다. 라디오, 선풍기, 전기밥솥, 재봉틀, 가스렌지, 사진기, 전축, TV, 세탁기, 전화, 냉장고, 피아노, 에어컨, 자동차의 14항목중 Guttman尺度法의 원칙에 따라 소유율이 15%미만인 것(에어컨, 자동차)과 85%이상이 소유한 것(라디오, 선풍기)를 뺀 10항목만 가지고 재생산계수를 계산한 결과 0.84로 비교적 의미 있는 尺度構성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10항목에 대하여 1항목당 1점씩을 주어 0~10점의 범위로 점수를 얻었다.

그리고나서 남편의 教育, 職業, 收入, 家內物品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243명의 응답자 중에서 남편의 직업에 무응답한 17명과 남편이 없는 미망인 응답자 10명, 수입에 대해 무응답한 19명을 뺀 197명만을 골라내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教育, 職業, 收入 이 세 가지변수가 사회경제적지위를 측정하는 尺度로서 서로 意味있게 연관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한 것이었다.

응답자 남편의 教育, 職業, 收入 그리고 家內物品간의 相關關係係數는 다음 <표 1>와 같다.

<표 1> 응답자 남편의 教育, 職業, 수입 그리고 가내물품 간의 상관관계 계수

	직업	수입	물품
교육	0.73**	0.61**	0.69**
직업		0.71**	0.78**
수입			0.76**

註 **유의수준 .0.01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의 教育, 職業, 收入, 物品사이에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지위 점수는 남편의 교육, 직업, 수입, 물품의 점수를 모두 합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社會經濟的地位點數와 衣服行態 각 次元과의 關係를 알아보기 위하여 社會經濟的地位點數分布를 넷으로 나누었다. 이때 區分基準으로는 각 급간의 頻度가 비슷하도록 나누었고 또한 그 區分이 現實의 인가를 檢討하여 나누었다. <표 2>에 社會經濟的地位 區分을 실었다.

<표 2> 사회경제적지위 구분

사회경제적 지위점수	인원수	구 분
6~18	52	하 (low)
19~27	48	중하(medium-low)
28~33	58	중상(medium-high)
34~36	39	상 (high)

2. 二次 分析 : 가설 검증

응답자 전체의 衣服行態次元에 대한 平均점수를 <표 3>에서 검토해 보면 일반적으로 衣服의 重要性에 대한 態度는 평균점수 3.04로 대체로 中間의 경향을 띠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의복기호에서는 3.23의 점수를 나타내 개성적인 면으로 기울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衣服選擇에서는 2.60을 나타내 미적인 면과 실용적인 면이 고루 나뉘어 선택됐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의복구입에서는 3.26의 점수를 나타내 미리 계획을 세운 후 의복을 구입하는 경향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표 3> 차원별 점수

의복차원	(태도) 중요성	(기호) 개성	(선택) 심미성	(구입) 합리성
문항수	4	4	4	3
전체평균	12.18	12.95	10.41	9.80
표준편차(S.D.)	2.81	3.00	2.67	2.41
평균/문항수	3.04	3.23	2.60	3.26

1) 社會經濟的地位와 衣服行態次元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衣服重要性에 대한 態度는 $p<0.05$ 수준에서 有意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나머지 세 차원에서는 각 계층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영가설 1만 기각되고 나머지 영가설 2, 3, 4는 기각되지 못하였다.

2) 年齡을 통제한 후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衣服行態 次元

응답자의 나이와 社會經濟的地位 간의 關係를 알아보

〈표 4〉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의복차원과의 변량분석

의복차원	계 총		下		中 下		中 上		上		F ratio	차이
	M	S.D.										
중요성	11.27	2.73	12.40	2.91	12.24	2.57	13.05	2.79	3.263	*		
개성	12.27	2.47	13.13	3.21	13.55	3.16	12.74	2.90	1.805	N.S.		
심미성	9.94	2.55	10.52	2.68	10.90	2.62	10.18	2.74	1.298	N.S.		
합리성	10.37	2.31	9.79	2.78	9.59	2.20	9.36	2.18	1.549	N.S.		

註) 유의수준*.05

N.S.: not significant(의의 없음)

기 위해 상관계수를 내어본 결과 0.27로 의미 있는 상관이 나왔다. 나이와 社會經濟的地位와는 $p < 0.05$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므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衣服行態의 차이가 나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 아래 이를 통제한 후 사회경제적 지위와

衣服行態次元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즉 나이를 20代 30代, 40代, 50代의 네 範疇로 나누어 각 나이별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衣服行態次元간의 變量分析을 한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代에서만 사회계층과 衣服의 重要性에 대한 태도가 $p < 0.05$ 수준에서 有의

〈표 5〉 나이별 사회경제적 지위와 의복행태 차원간의 변량분석

의복차원	계 총		하		중 하		중 상		상		F ratio	차이
	M	S.D.	M	S.D.	M	S.D.	M	S.D.	M	S.D.		
20代(21名)	중요성	12.60	3.72	14.20	2.56	13.22	2.39	11.50	0.50	0.460	N.S.	
	개성	12.60	3.14	13.20	2.79	14.67	3.83	12.00	1.00	0.540	N.S.	
	심미성	11.20	2.04	9.60	2.06	12.44	2.45	13.00	3.00	1.539	N.S.	
	합리성	10.80	2.23	9.00	2.97	8.78	2.35	9.00	2.00	0.642	N.S.	
30代(70名)	중요성	11.00	2.27	12.72	3.19	12.45	2.62	14.11	3.00	3.046	*	
	개성	12.30	2.80	14.50	2.75	13.45	2.97	14.00	2.16	2.160	N.S.	
	심미성	9.00	2.64	10.44	2.61	11.15	2.63	10.67	2.11	2.587	N.S.	
	합리성	11.04	2.27	10.33	3.00	9.20	2.06	10.11	1.97	2.015	N.S.	
40代(83名)	중요성	11.33	2.69	11.47	2.52	12.00	2.36	12.95	2.62	1.637	N.S.	
	개성	12.89	1.49	12.32	2.72	13.42	2.93	12.32	3.15	0.814	N.S.	
	심미성	10.17	2.19	10.74	2.36	10.33	2.56	10.14	2.93	0.217	N.S.	
	합리성	9.33	2.11	10.21	2.09	10.33	2.09	9.14	2.01	1.738	N.S.	
50代(23名)	중요성	11.00	3.16	12.83	2.41	10.80	2.79	12.33	2.98	0.574	N.S.	
	개성	10.00	1.29	11.50	4.43	12.60	3.07	12.67	2.75	0.782	N.S.	
	심미성	11.88	1.77	10.83	3.89	9.80	1.60	8.67	1.60	1.520	N.S.	
	합리성	10.50	1.98	7.50	2.57	9.00	1.79	9.17	2.79	1.365	N.S.	

註) 유의수준 *.05

N.S.: not significant(의의 없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3) 기타 변인과 衣服行態와의 관계

衣服行態와 관련된 社會階層 이외의 변인으로는 응답자의 나이와 교육정도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우선 응답자의 교육과 衣服行態와의 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을 살펴보면 衣服行態次元중 衣服選擇基準과 응답자의 교육정도만이 $p < 0.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

이가 있었다. 즉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의복선택에서美的인 면을 더 重要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응답자의 나이와 衣服行態와의 변량분석을 한 결과는 〈표 7〉에 실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나이와 의복기호간에는 $p < 0.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나이가 젊을수록 의복의 개성적인 면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세 축면에서는 통계

〈표 6〉 응답자의 교육과 의복차원과의 변량분석

의복차원	교육		下(무학~국졸)		中(中중퇴~高卒)		上(초대중퇴~大卒)		F ratio	차 이
	M	S.D.	M	S.D.	M	S.D.	M	S.D.		
심 미 성	10.07	2.65	10.10	2.52	11.11	2.80	3.122	*		
중 요 성	11.48	2.92	11.99	2.65	12.85	2.91	2.920	N.S.		
합 리 성	10.07	2.33	9.93	2.57	9.44	2.08	0.992	N.S.		
개 성	12.28	2.35	12.93	3.22	13.30	2.80	1.136	N.S.		

유의수준 * 0.05

N.S.: 의의없음

〈표 7〉 응답자의 나이와 의복차원 간의 변량분석

나이	의복차원		심 미 성		중 요 성		합 리 성		개 성	
	M	S.D.	M	S.D.	M	S.D.	M	S.D.	M	S.D.
20代	11.52	2.63	13.14	2.82	9.33	2.59	13.57	3.40		
30代	10.20	2.71	12.26	2.91	10.21	2.50	13.41	2.90		
40代	10.34	2.56	11.99	2.62	9.77	2.14	12.76	2.74		
50代	10.30	2.73	11.78	2.98	9.04	2.58	11.65	3.28		
F test	1.32		1.36		1.17		1.92			
차 이	N.S.		N.S.		N.S.		*			

註) 유의수준 * 0.05

N.S.: 의의없음

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V. 解析 및 結論

1. 解析

1) 社會經濟的地位에 따르는 衣服行態 〈표 4〉에서 본 바와 같이 영가설 1이 기각되었으므로 서울 시내 주부들의 의복중요성에 대한 態度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사회경제적지위가 上>中>下의 순으로 의복에 대해重要性을 더 나타내었다. 이結果는 사회경제적지위와 衣服重要性에 대한評價사이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음을 밝힌 Vener의 研究²¹⁾와 일치했다. 또한 本研究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한가지 변수로 使用했던 직업과 의복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사무직 종사자들이 기능적 종사자들보다 의복에 더重要性을 두었다는 Stone과 Form의 研究는 本研究結果를 지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표 4〉의 分析結果 영가설 2, 3, 4는 기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서울시내 주부들의 의복기호, 의복선택 기준 그리고 衣服購入등의 衣服行態는 社會經濟的地位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本研究의 일반가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복행태

에는 차이가 난다」를 본 연구 結果는 부분적으로 밖에 지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外國에서 研究된 理論이 우리나라 사회환경에서 차이점을 나타내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조사대상이 서울시내에 국한되었으므로 같은 문화권 안에서 요즘의 확대된 매스컴의 영향으로 계층간의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2) 나이를 통제한 후의 사회경제적지위와 衣服行態 〈표 5〉에서 본 바와 같이 20代 40代 50代에서는 각 계층간의 의복행태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 30代에서는만 사회계층과 의복중요성에 대한 태도만이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20代와 50代는 빈도수가 20정도였으므로 그들의 분포가 편중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그 결과를 확대 해석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30代, 40代는 빈도수가 70이상이었는데 유독 30代에서만 계층별로 차이 있는 의복행태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1945年에 해방되었으므로 그전에 교육받은 40代와 해방이후 국민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30代와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차이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 결과는 Karlyne A. Anspach와 Yoon Hee Kwon에 의해 연구된²²⁾ 한국여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양장의 숫자와 종류가 그들 나이 특히 일제시대에 태어

난 여자와 그후 서구식 교육을 받은 30代이전 여자들과有意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와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3) 응답자의 教育과 衣服行態

응답자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의복선택에서 美的인面에 치중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衣服選擇은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고 응답자의 교육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결과는 C. Kundel의 연구²³⁾에서 부인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7달러짜리 옷 두개 사는 것보다는 14달러짜리 옷 한개 사는 경향이 있었다는 결과와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4) 응답자의 나이와 衣服行態

끝으로 의복기호는 응답자의 나이와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즉 나이가 젊을수록 의복의 개성적인 면을 중요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의복기호는 사회경제적지위보다는 응답자의 나이와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Hurlock의 연구²⁴⁾를 보면 청년기일수록 의복을 가장 重要시하고 사회활동, 행복감 젊음에 대한 자신감등이 의복에 의해 많이 지배된다고 한다. 따라서 나이가 젊을수록 자기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의복을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2. 結 論

本研究에서 제시한 가설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한結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서울시내 주부들은 사회경제적지위에 따라 衣服行態中 衣服重要性에 대한 態度에는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의복의 重要性에 대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30대에서만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록 의복중요성에 대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의복선택기준, 의복기호, 그리고 의복구입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衣服選擇시 美的인面을 重要視하며 나이가 젊을수록 衣服에서 個性的인面을 重要視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衣服行態가 사회계층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일반적 가설을 잘 뒷받침해 준다고 보기 어렵다. 부분적인 차이만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어진 자료에만 의거한다면 도시의 주부들에게 있어서는 계층간 衣服行態가 사선상 비슷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는 아마도 매스컴의 영향이 큰 대중사회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좀더 체계적으로, 연

구대상자도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소도시등으로 나누어 비교 함으로써 더 뚜렷이 밝혀지리라 본다.

引 用 文 獻

- 1) 전국 교육대학 연합회편, 韓國社會의 諸問題, 164, (1966).
- 2) 高永復, 現代社會學, 法文社, 39, (1976).
- 3) 알렉스·인켈스 著, 崔弘基譯, 社會學, 서울대학 출판부, 132.
- 4) Horn, M.J., The Second Skin., Houghton Mifflin Comp, 90(1968).
- 5) Ryan, M.S., Clothing.,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37(1966).
- 6) Mayer, K.B. & Buckley, W., Class and Society., Random House, Inc., 3-8(1970).
- 7) Mayer, K.B. & Buckley, W., 前揭書, 86.
- 8) Mayer, K.B. & Buckley, W., 前揭書, 92-93.
- 9) 김민자, 취학전 아동의 의복기호와 의복행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 (1973).
- 10) Roach, M.E. & Eicher, J.B.,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John Wiley & Sons, Inc., 66(1965).
- 11) Ryan, M.S., 63-64.
- 12) Rosencranz, M.L., Clothing Concepts,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35(1972).
- 13) Ryan, M.S., 前揭書, 65.
- 14) Rosencranz, M.L.; 前揭書, 142.
- 15) Rosencranz, M.L., 前揭書, 140.
- 16) Rosencranz, M.L., 前揭書, 138.
- 17) Kundel, C., Clothing practices and preferences of blue-collar workers and their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 (No. 4), 230 (1976).
- 18) 김영우, 소득계층별 학령기 아동복의 인식,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5, (1975).
- 19) Ryan, M.S., 前揭書, 166.
- 20) 강혜원,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연세대학교 대학원, 22, (1974).
- 21) Rosencranz, M.L., 前揭書, 135.
- 22) Anspach, K.A. & Kwan, Y.H., Western Dress Styles Adopted by Korean Women, *Home Econo-*

- mics Research Journal*, June, 4, (No. 4), 235
(1976).
- 23) Kundel, C., 前揭書, 225.
- 24) 이인자, 여자대학생의 의복 디자인 기호와 성격
간의 상관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7, (1974).